

섬의 생활을 뒷받침해온 아단

아단은 바닷바람에 강해 해안선의 방풍·방조림으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옛날부터 뿌리에 가까운 줄기를 두들겨서 로프로 만들거나 잎을 엮어서 바구니나 모자로 만드는 등, 생활을 뒷받침하는 나무로서 중요시해왔습니다.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파인애플 같은 주황색 열매가 익어 소라게, 야자집게, 풍이 등이 매우 좋아하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아단 주위가 북적거립니다. 방언명: 아라기